



###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 누아씨(NUAC)가 간다

2박3일,  
청소년 통일체험 리더십 캠프



#### 당신이 통일주인공

지역 복지센터 동료상담사  
홍민정 씨



#### 통일돋보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  
'1위' 서울 - '9위' 평양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을 압박하던 트럼프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는 불안감을 갖고 사태를 관망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무역적자의 폭과 환율 조작국 지정을 과감하게 양보하며 중국을 대북압박에 동참시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과 기자회견 없이 끝이 났지만 트럼프는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칭찬을 하며 북핵문제 종결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가장 원하는 정책목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혼자서 해결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은 칼 빈슨 항공모함 뿐 아니라, 핵잠수함 미시간 호를 한반도 해역에 배치했고, 인도양에서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을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압력을 인식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외교 수술식 선제 타격은 허용하되 미국이 38선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의 사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강대강' 일변도로 마주 달리던 중국과 미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함중연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일단 9월로 예정된 19기 전당대회까지는 미·중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미국도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국내정치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4월 29일이면 트럼프 집권 100일 계획이 종료된다. 현재 트럼프에 대한 대국민 지지는 41%로 역대 미대통령의 같은 기간 통계 중 제일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리아 폭격과 강력한 대북압박은 트럼프가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승부수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갖는 모든 옵션을 활용 북핵문제 해결에 승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 중이므로 중국과 미국이 모처럼 한 방향에 서있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현 시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수술식 선제 타격은 허용하되 미국이 38선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의 사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정당 대선후보들은 사드배치가 조속히 진행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외과 수술식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코퍼니쿠스적 상황 하에서 우리 후보들의 입장은 혁신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움직임에 배치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 15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미 상원의원 100명을 전원 참석시켜 국무장관, 국방장관, DNI 국장과 합참의장이 대북 상황 브리핑을 했다. 28일에는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15개국과 '최고의 압박' (maximun pressure) 및 개입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단절을 포함한 강도 높은 압박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상원 의원들이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백악관을 방문해 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청취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차기 정부가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대북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공동의 이익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중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흑자도 5천 억 달러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총량이 48억 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상에 유사상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가장 손실을 볼 것인지는 자명하다. 중국이 만약 북한 편에서 미국과 대결한다면 1조 이상의 채권과 5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을 트럼프가 암시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며 중국의 실업인구가 1억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가 과거 중국영토의 일부였다는 대목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아마도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적 우위를 인정해달라는 설득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다.



*주변국가가 우리 국내정치를 빌미로 강압외교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방주권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 경축 군중합동타격시위 참관 중인 김정은

중국과 직거래를 할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다룸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의견에 목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기간 중 어느 유력 후보는 '코리아 패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에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은 트럼프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가 듣고 싶은 말은 한반도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니셔티브에 적극 협조하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공개적인 입장일 것이다. 결론론 트럼프의 문제 해결 의지를 칭찬하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귓속말로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영국은 1940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독일로부터 엄청난 공습을 받았다. 각종 로켓포와 폭격으로 110만 이상이 주거시설을 잃었고 6만 이상의 사상자가 났지만 영국은 이를 이겨냈다. 독일은 영국국민이 공포와 혼란 속에 노출되면 처질 정부가 전쟁 수행의지를 잃게 되리란 기대 하에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방공호 생활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냈고, 국민이 단합했으며,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시기(finest hours)라고 기억하고 있다.

우리도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고 우리 군은 최단 시간 내에 북한을 격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는 위대한 국민으로서 자세가 아니며 오히려 북한 지도부를 돕는 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다.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주변국가가 우리 국내정치를 빌미로 강압외교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국방주권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단합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 '1위' 서울 - '9위' 평양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잘롭닉(Jalopnik)'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용하기 쉽고 깨끗한데다 선로 유리벽 등 안전까지 철저하기 때문인데요. 세계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 이어 도쿄 2위, 파리 3위, 홍콩 4위, 런던 5위, 뉴욕 6위, 모스크바 7위, 몬트리올 8위, 그리고 북한의 평양 지하철이 '세계 9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민족이 모두 10위권 안에 들다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결과인데요. 대리석을 이용해 돔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북한의 평양 지하철과, 서울 구석구석을 잇는 남한의 서울 지하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지하철 노선 거리  
서울이 평양의 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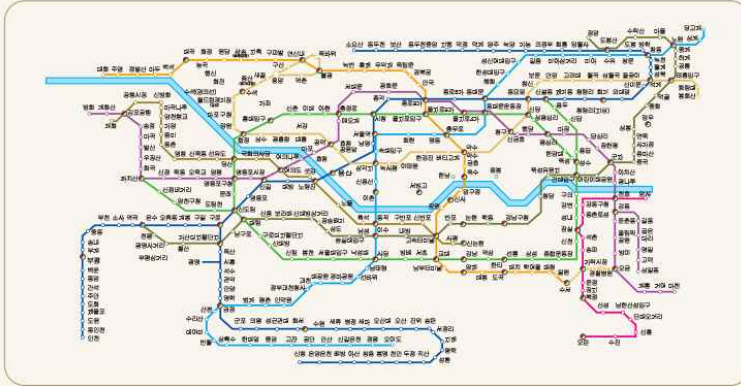


지하철 노선 수  
서울 9개, 평양 2개

**서울**  
(1~9호선)

- 1호선
- 2호선
- 3호선
- 4호선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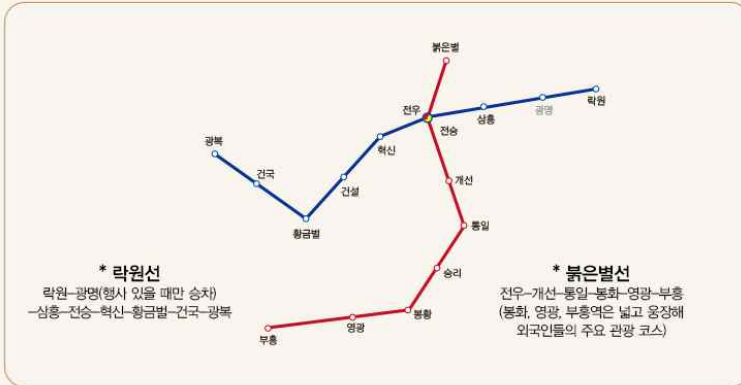
지하철역  
311개



**평양**  
(1~2호선)

- 락원선(혁신선)
- 붉은별선(만경대선)

지하철역  
14개



**지하철 운행시간**

평양이 첫차 30분, 막차 1시간 빠름  
배차 간격은 서울이 2~5배 빠름



서울 

오전 5시 30분  
저녁 12시(주말 11시)  
평균 2~3분

첫차  
막차  
배차간격

 평양

오전 5시  
저녁 11시  
평균 5~15분



## 지하철 요금

평양이 2.5배 저렴

서울 

교통카드 1,250원  
(5km당 100원 추가)

55,000원  
(서울 전용 60회)



1회 요금

정기권

 평양

5원  
(추가 비용 없음, 한화 100원)

900원  
(6개월)

\*북한돈 10원은 한국의 1,000원 가치 / 북한 주민 평균 월급 2천 원



## 지하철 수용인원

서울이 10배 많음

서울 

160명  
(1~9호선)

720만 명



한 칸

하루 평균  
이용객

 평양

70명  
(락원선, 붉은별선)

20만 명

\* 서울시 인구 약 1천만 / 평양시 인구 340만



## 지하철 특징

서울은 노약자석, 평양은 군인석 있고  
임산부석은 서울·평양 모두 있어

서울 



 평양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자전거

지정석

노인·임산부  
군인·영예군인(상인군인)

심플하고 실용적  
스크린도어 설치  
광고, 시 등이 많음

디자인

화려하고 천장이 높음  
김일성 위상화 모자이크  
대합실 100평 규모

수유실, 매점, 자판기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하단에 매장

출퇴근길 안전요원 상주

단속 및 관리

보안성(경찰)직속 지하철도  
운영국 군인이 감시

※ 자문: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은 협동이에요!”

## 대전 동구·서구·대덕구 협의회, 4개 중학교 학생들과 ‘2박3일, 청소년 통일체험 리더십 캠프’를 가다

단비가 내리던 날 아침, 대전 동구·서구·대덕구 협의회는 관내 4개 중학교 아이들과 함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찾았다. 4월 5일부터 2박3일간 이어진 견 지역 ‘청소년 통일체험 리더십 캠프’에는 대전 신단중앙중, 우송중, 둔산중, 구봉중 아이들 160명과 선생님, 자원위원들이 함께 했다. 아이들은 이날 토론, 게임, 체육 활동 등을 통해 남북 문화 그리고 통일에 대해 한층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 ‘볼나무’처럼 씩씩한 아이들을 현장에서 만나봤다.



### 온몸으로 통일 배우기, 퍼펙트 드림팀을 완성하라!

아침 9시, 학교를 출발한 버스는 정오가 넘어서 센터에 도착했다. 잠에서 덜 깬 아이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센터 식당에 한상 가득 차려진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통일 활동에 나섰다. 첫째 날 준비된 프로그램은 ‘통일채널 e’와 ‘퍼펙트 드림팀’이었다. ‘통일채널 e’ 프로그램은 네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 조를 이뤄 남북한의 ‘과거-현재-미래’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분단’, ‘이산’, ‘고향’ 등 각 조에 주어진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남북한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열띤 토론 끝에 아이들이 내놓은 문장은 ‘통일은 서로를 포용하는 것’, ‘통일은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화합을 필요로 하는 문구들이었다.







퍼펙트 드림팀 시간에는 4개 학교 학생들이 무작위로 뒤섞여 다양한 협업 활동들을 펼쳤다. 한 줄로 서서 공 넘기기, 림보, 꼬리잡기, 몸으로 모형 만들기, 이어달리기, OX퀴즈 등이 그것이다. 이중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순서는 '몸으로 모형 만들기'였다. 두 명이 짝을 지어 손발을 맞잡고 한 번에 일어서기로 시작한 게임은 4명, 6명, 8명으로 늘어나며 세모, 네모, 동그라미, 별 모양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옆 친구와 손발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서로 부둥켜안고 지탱해주면서 한 걸 가까워지는 듯했다.

## 북한말 따라잡기 VS 통일 미래도시 건설 게임

둘째 날 오전에는 두 학교로 나뉘어 '통일한국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신탄중앙중과 우송중 학생들은 '북한말 따라잡기' 시험을, 둔산중과 구봉중 학생들은 '통일 미래도시 건설하기' 게임을 했다. 북한말 따라잡기에 참여한 신탄중앙중과 우송중 아이들은 10개 조로 나뉘어 시험을 벌였는데 '바나나킴'과 '조영팀'이 16개를 맞춰 공동 우승을 했다. 아이들은 '살결물(스킨)', '물크림(로션)', '손전화(휴대폰)', 달린옷(원피스) 등 북한말이 낯설고 투박하지만 남한 말에 비해 순우리말이 많아 친근하다며 북한말로 대화를 나눠보기도 했다.



같은 시간 둔산중과 구봉중 아이들은 '통일 미래도시 건설하기 게임' 삼매경에 빠졌다. 친구 한 명을 가운데 세워 3분 안에 높은 탑을 쌓는 게임에서는 남학생들이 우세했지만, 다시 탑 속 친구를 구출하는 순서에서는 섬세한 여학생 조가 속도를 냈다. 이어 통일 도시 만들기 시간에는 우수중 한수민 학생이 "통일은 남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라며 친구들이 만든 건물과 온 마을을 잇는 철길을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 통일뉴스 제작에 빠진 학생 PD · 아나운서 · 기자들

오후에는 센터 전역을 돌아다니며 '통일뉴스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10명씩 조를 이룬 아이들은 각각 PD, 아나운서, 뉴스기자, 촬영기자, 연기자, 편집인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시나리오부터 연출까지 기획, 촬영, 편집과정을 경험하며 1분짜리 통일뉴스 영상을 만들었다. 이날 박수를 가장 많이 받은 팀은 백두산 미스터리 사건을 다룬 '서프라이즈팀'이었는데, 통일 후 관광객들이 많아진 백두산에서 2000년대 운동화가 유물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배꼽이 빠지도록 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통일 미래센터 체험관' 견학이 이어졌다. 통일 미래센터 체험관은 통일한국의 생태와 광물자원, 인구 증가, 관광 명소 등 통일편익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곳으로, '통일누리역'에서 체험카드를 받아 들어가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구현돼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린 이날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한마음 콘서트'였다. 학교별로 춤과 노래 실력을 갖춘 6개 팀들이 숨겨온 끼와 재능을 여과 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상품이 걸린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별 대표들이 나와 막춤을 선보이기도 했다.



통일뉴스 만들기 시간



4개 학교가 함께 한 '한마음 콘서트'



오두산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바라보는 아이들

마지막 날에는 다 같이 오두산전망대에 올랐다. 지난 이틀 동안 친구들과 한방을 쓰며 온몸으로 통일을 체험한 아이들은 전망대에 올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통일 응원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견학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던 학생들에게 '캠프를 통해 느낀 통일은 뭐냐'고 묻자 신탄중앙중 김미령 학생은 "아무래도 통일은 협동인 것 같다"며 "캠프에서 언니 오빠들과 친해진 것처럼, 통일도 남과 북이 서로 친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박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박종화 민주평등자문위원(대전 서구)은 "이번 캠프가 아이들이 느끼는 남북 문화 차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주는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캠프를 마치며...



신탄중양중  
홍영식(가명)

저는 제가 통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시어가 나오고 다섯 문장을 쓰라고 하니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둠 친구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스티커를 왕창 받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렇게 스티커 5개를 모아 1·3·4모둠과 함께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캠프를 통해 통일에 관한 지식을 가득 얻은 기분입니다.

북한이 마음을 열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교류와 대화를 자주 나누어 평화를 맺는다면 미래에는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몇 배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구봉중  
김민주(가명)



둔산중  
이미라(가명)

남북이 갈라져 있던 것은 세계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이 느끼는 아픔과 분단의 고통은 TV로 봤던 것보다 더욱 차갑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북한말 따라잡기'를 통해 우리가 같은 역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임진강을 15분만 걸어가면 북한이라고 하는데, 제가 집에서 학원을 가는 거리만큼 가깝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남북 분단이 하루빨리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통일캠프라고 해서 지루할 줄 알았는데,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며 체험을 하다 보니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한 초등학교를 본 것도 신기했습니다.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송중  
박철민(가명)

#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정리한 코너입니다.



## “北평양 고급 아파트 가격 급등 최고 2억원대”

북한 평양에서 최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급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더보기](#)



## 중국이 안 나서면 북핵 혼자 해결 트럼프의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단독 조치(unilateral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보기](#)



## 새 정부와 사드의 운명

주중 한국대사관은 속수무책이다. 양국 간 외교채널은 사실상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과장급 이상 고위급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더보기](#)



## 평양 주민 60만 명 강제 이주 준비 반체제문자 숙아내나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 60여만 명을 타 지역으로 방출하는 대규모 이주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보기](#)



### 고민 깊어진 중국 “원유 끊어도 北 핵포기 안하면 어쩌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빅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양국은 서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더보기

### 한국경제

### 트럼프 “中이 북핵 해결 도우면, 환율조작국 지정 안할 것”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라는 대국민 공약을 뒤집었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한의 후원자에서 돌아섰다.

+더보기



### 트럼프 ‘北비핵화 거부시 대비 모든 옵션’ 마련 NSC에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기존 동맹국은 물론 중국까지 국제 공조를 통해 쓸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더보기



### 軍, 북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앞당긴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 체계’의 조기 구축을 중심으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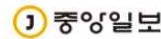
+더보기



### 러, 한반도 위기 평화적 해결 거듭 촉구 “제재 해법 전망없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19일 한반도 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는 정치·외교적 해결 방안 지지자로 남아있으며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전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 한반도 온다던 칼빈슨 진로 혼선, 미군 실수? 고도 심리전?

북한의 도발 위험에 맞서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향했다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재 호주 인근 해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 통일부, ‘주적 논란’에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

통일부는 열린 5당 대선후보들의 TV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북한은 적이자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보기



철원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씨앗들'을 심다

# 국경선 평화학교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는  
평화통일 일꾼 '피스메이커'를 키우는  
국경선**평화학교**가 있습니다.

정지석 목사와 23명의 교수진이  
2013년 3월 1일 개교한 학교입니다.

## ‘피스메이커’란

보이는 국경선(한계선)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계선을 없애 오롯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인데요.



평화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전영숙 부장은  
“평화를 공부하다보면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통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국경선평화학교는 8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준비합니다.  
**인문·인권** 등의 '평화학 교육'  
 생명에서 평화의 감수성을 배우는 '평화 봉사실기'  
 분단과 평화회복 현장을 체험하는 '국내외 평화순례'  
 등이 그것인데요.



지금의 국경선평화학교가 있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누가 평화를 배우려고 철원까지 가겠냐”**는  
 주변의 반응과 장소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원 남방한계선 안에 있는 건물을 평화학교로  
사용해도 좋다**”는 강원도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DMZ 안에 ‘평화학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뿐이던 학교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  
민통선 최초로 프리패스를 허용하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22개 학교 **학생 1천여 명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국경선평화학교** 선생님들의 목표는  
한 해에 1만 명의 청소년들을 키워  
10년 뒤 **10만 명 이상**의 '피스메이커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10단계라면  
국경선평화학교는 이제 1단계를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스스로 ‘**평화의 씨앗**’을 심도록  
머리와 가슴으로 평화를 이해하고  
손발로 실천하는 힘을 키워주는게  
저희의 일입니다.”



# 북한 재벌 '돈주'들의 생활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북한에는 사치 생활을 즐기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이들은 고급 승용차에 삼성 TV를 몰래 들여놓고, 고급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다니기도 한다.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만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북한 돈주들은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새로 바꾸고 통화료로 평균 100달러 이상(월정액인 150분 제외)을 충전해 사용하고 있으며, 국경 근처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즐기기도 한다. 주택에도 변화가 생겼다. 1990년대에 개인 돈주들이 주택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뒤 그 일부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의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새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국유화에서 사유화로 변하고 있는 북한 경제와 신흥 부자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 주민 100명 중 2명은 북한의 '돈주'?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고 할 때 약 2%에 해당하는 50만 명은 1990년대 이후 생겨난 신흥 부자들이다. 이들이 평균 5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무려 250억 달러가 개인 수중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00명당 2명은 부자인 셈이다. 더욱이 이들은 생활비를 저축해서 모으지 않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은행이 아닌 현금 자산까지 따지면 '지하금융'의 규모가 무척 방대하다고 봐야 한다.



## '권력형·무역형·장사형'으로 나뉘는 북한 돈주들

북한에서 돈주 출신을 논할 때 자수성가는 평균 70%, 부모 상속은 30%로 분석되며, 유형별로는 권력형, 무역형, 장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권력형은 뇌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로, 인사 담당 간부, 검찰, 주택 배정처, 교육국장(특히 대학 추천 담당), 해외 건설 담당관, 건설 감독관(주택부지 허가), 출입국 관리국 등 주로 권력을 가진 기관의 근무자들이다. 무역형은 각 기관 수출입담당 부서 종사자들을 비롯해 외화 상점과 식당 운영자, 무역 대표부 해외파견 근무자, 무역 감독·통제·승인 담당관들이다.



장사형은 소매가 아닌 도매상들이다. 자수성가한 장마당 상인들은 평균 2~5만 달러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국경선 주변에서 많은 양의 상품들을 움직이며 저렴한 가격에 회전수를 높이는 동시에 각 지방에 파트너를 정해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배급제가 무너져 자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통제 불능의 현실을 기회로 삼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겨서라도 무역에 뛰어들어 돈이 되는 자원수출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마약 등의 위험한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 '달리만 보면 돌부처도 히죽히죽 웃는다'



북한의 자산 형성은 배급제가 무너진 1994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생겨난 90년대 중반부터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이후 시장경제 덕에 그나마 주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인해 자금을 국가로부터 수탈당하자 주민들은 더 이상 북한 원화의 가치를 믿지 않고 외화를 높게 인식하게 됐다.

당국의 끈질긴 자본주의 사상 배척교양 운동에도 불구하고 "달리만 보면 돌부처도 히죽히죽 웃는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대두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았다. 정부는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겠다고 광고했지만 은행 거래를 '죽음의 거래'로 여기고 있던 돈주들엔 이미 집이 '제일 안전한 개인은행'이 된 것이다. 물론 돈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방지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되었다. 돈주가 되려면 종갓돈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 종갓돈을 마련하려면 먼저 돈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신뢰에 기초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이처럼 '신뢰에 기초한 대인관계'를 얻으려면 결국 권력을 얻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 권력을 등에 업은 북한식 정경유착

북한에서도 권력은 돈을 낳는 '샘'이다. 돈주들은 권력에 로비해 이권을 챙기고 부를 쌓아간다. 권력은 돈주들의 능력을 움직이고 돈은 권력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북한식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식 정경유착은 체제의 특성에 맞게 기술을 부린다. 그 '수탈' 방법이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어 총성 차원의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사회적 동원'을 명목으로 강사에 지장을 준다. 뒤를 봐주던 권력자들이 당 검열로 숙청되거나 권력의 2대 축인 당과 공안기관 중 한 곳에 치우치면 갈라가던 돈주들이라도 재산물수나 총살을 당하는 등 권력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의 배려 외에 축적된 부는 불법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법적 논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라고 선동하고 있고, 검찰은 "바칠 거야? 갇혀 갈 거야?"라는 위협적인 형태로 상납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규모를 조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이중 착취'가 일어난다. '돈은 밝은 데서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권력과 돈주들의 능력이 결합될 때라야 권력의 맛을 느끼고 돈주들은 '삶의 광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돈 있는 사람은 감시망에 올라와 있고 '돈 관리를 잘하지 않은(혼자서 다 갖으려는)' 돈주는 재산 물수와 더불어 '국가 재산 탐오남비(국가 및 공동 재산 횡령), 자원 횡탈 판매' 등의 죄를 씌워 공개 처형한다. '키위서 잡아먹는다'는 돈주들의 '운명어'가 등장한 이유다. 따라서 돈주들에게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큰 기관의 영향력 있는 간부들의 '선'을 찾는 것이 문벌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의 돈주들은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돈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신중하지만, 이는 각 시도군에 김 씨 부자 등당과 사적 연구실 등 '우상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노동당에 입당시키거나 '죄'를 용서해주는 등 정치적 명예를 돈으로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2013년에는 김 일성, 김정일 기금을 만들어 헌납의 규모에 따라 김정은 감사표창과 노력영웅 칭호까지 남발하면서 개인자금 결취에 몰인해 오고 있다. 다만 강제성이나 자발성이나에 따라, 즉 돈주들의 돈 활용도에 따라 당원도 되고 당원직을 빼앗기기도 한다.



## 북한 돈주들의 부동산 투기와 부작용

북한의 신흥 부자들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열을 올린다. 북한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가 주택을 지어 무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 경제의 피폐함이 이를 옛말로 만들었다. 그래서 돈주들은 권력기관의 명의를 빌리고자 기관 직원으로 입직한다. 직원이 아니면 시공주가 되어도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검열에 걸리면 무상물수를 당하기 때문이다. 시공 후에는 국가에 20%를 헌물로 바쳐야하는데, 돈주들은 이를 10%로 줄이기 위해 '꼼수작전'에 돌입한다. 명의를 가진 책임자가 김정은에게 건설 전 종업원 주택문제를 풀기 위해 20% 국가반납분을 10%로 줄여달라는 '배려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수락되면 실제 시공주들은 종업원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팔아 원가보상의 명목으로 책임자와 이득을 공유한다.

방법은 이렇다. 우선 도시설계사업소에 설계심사를 받고 건설감독성의 부지허가(건설명시)를 받아 건설주와 계약을 맺는데, 건설주와는 시공 후 5세대 정도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이후 초기 자금 15만 달러만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면 입지조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평양의 경우 입지와 기초공사 속도를 보고 기초 시기에 2만 달러를 투자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완성 후 구매하려면 5~10만 달러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기관의 명의를 쓴다고 해도 운이 나쁘면 건설이 끝난 후 통째로 빼앗겨 투자자들의 성화에 자살하는 돈주도 있다. 2007년 평양시 중심구역인 중국역에 김정일 호위국군(경호)의 명의를 빌려 20층짜리 아파트가 건설됐는데, 당시 호위국이 김정일에게 호위국군관들과 일반 사람들이 함께 입주하면 '신변 비밀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호위국이 독자 입주를 비준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을 잃고 말았다. 호위국 명의를 빌려 좋은 입지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 일확천금을 얻으려던 돈주는 건물을 통째로 뺏기고 투자자들의 '공격 쓰나미'에 40대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정책과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시멘트와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가 싸게 생산되고 있고, 인건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부동산을 돈 벌기 좋은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



평양 아파트 붕괴 후 건설 책임자의 보상없는 사과

## 한국산 제품 '통일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인식 전파



북한 주민들이 사는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지방에만 가능하고 평양의 경우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3~6층이 이상적인 층이다. 전기 부족으로 엘리베이터를 정상 가동할 수 없게 하였고 전압이 약할 경우 고층에 물을 올리지 못하므로 수도공급은 6층 이하만, 7층부터는 고층에서 하수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서다. 그래서 아파트 화장실은 물을 2톤가량 저장할 수 있다. 계다가 온수체계 자체가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운물을 사용하려면 끓여서 사용해야 한다. 돈주들은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남한산 경동보일러를 선호하며 전기를 담아두기 위해 용량이 큰 탱크 배터리를 구입해 이용한다. 조명용으로는 태양광 설치가 기본이고, 가스를 구매해 음식조리를 하는데, 가스는 생산량이 부족해 25kg짜리 한 통에 40~60달러를 준다 해도 없어서 못 살 정도다. 국경선 주변에 사는 돈주들은 중국산 가스통을 구입해 쓰고 있다. 평수가 커도 남한의 원룸보다 생활 편리도가 낮다고 봐야 한다. 만약 북한의 돈주들에게 평양의 50평대와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 서로 바꾸자고 하면 서울의 20평대에 웃돈을 얹어 주겠다고 할 것 같다.



시장 나가는 북한 할머니와 지나가는 청년

북한 돈주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한국산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한글만 표기돼도 세관에서 단속을 했지만, 지금은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들어갈 때 상표를 중국산으로 부착해 들어간다.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들어가면서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립해 한국에 판다'는 말로 안면 있는 세관원들을 다독이는 것이다. 북한 돈주들의 기호품은 2000년대 중반에 벌써 일본을 제치고 한국산이 됐다. 한국산은 질이나 기술에 있어 중국산과 비교조차 안 된다는 평가가 북한 돈주들에 의해 공기처럼 퍼져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 사회에 전파한 돈주들의 공로를 언젠가는 평가해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통일 후에는 건설공법을 무시하고 돈만 쫓는 북한 돈주들에게 '시공사와 계약을 맺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항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건설자재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법에 어긋나게 짓는 바람에 수백 명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던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주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생명보험도 없이 하늘나라로 간 북한 동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한의 건설법이 북녘땅에 상륙하는 날까지 통일을 외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통일! 통일! 통일이 모든 것을 구원한다고…….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북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북민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어요!

지역 복지센터 동료상담사 **홍민정** 씨

“제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속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먼저 정착한 선배로서 동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민정 씨는 올해 3년차 ‘동료상담사’가 됐다. 동료상담사는 6년 건 민정 씨가 처음 왔을 때처럼 모든 게 낯설고 막막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어쩔 수 없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낯선 곳에서 적응해야 하는 외로움, 일자리를 새로 찾아야 하는 부담감 등 탈북민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일이다.



## ❤️ 손목 부상으로 시작한 **엑셀 · 전산회계 공부**

아직도 딸아이와 두만강을 건넜던 그 밤을 잊지 못한다. 두 번의 복송 끝에 딸은 두고 가라는 친정 엄마의 만류에도 손을 꼭 붙들고 있던 딸이 두만강에 빠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다급한 마음에 물속을 뒤흔치고 또 뒤흔치다가 덩석 잡은 딸아이의 옷깃. 물 밖으로 나와 무사한 딸을 부여잡고 엉엉 목 놓아 울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딸아이만은 꼭 지키겠다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일곱 살 때 북한에서 데리고 온 아이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왔고,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울타리가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엄마에게 할 정도로 배려심 많고 리더십 강한 숙녀가 됐다. 딸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도 흐뭇한 일이지만 요즘 민정 씨는 일하는 게 ‘진짜진짜’ 즐겁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일이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서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마냥 민정 씨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 피어났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이고 활발한 민정 씨라고 남한 적응이 처음부터 쉬웠을 리 없다. 복송됐던 기억이 끈적해 한국조차도 오고 싶지 않다는 딸아이를 중국에 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에 취직한 뒤 배달, 서빙, 주방일을 도맡아했다. 매일같이 뼈 국물을 한 트럭씩 끓이고, 무거운 뚝배기를 닦고, 쟁반을 이고 나르는 일을 2년 동안이나 했다. 그러다 무리한 탓에 손목 인대가 늘어나버렸고 하는 수 없이 식당을 쉬어야 했다.



일을 쉬면서 중국에 있는 딸에게 생계비를 못 보내게 되자 눈앞이 캄캄해진 민정 씨. 그때 뜻밖의 길이 열렸다. 도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탈북 선배 연하 씨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무료교육을 추천받았던 것이다. ‘돈을 벌어야지,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하나’ 싶었지만 어차피 일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번 해보자 싶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엑셀, 오후에는 전산회계 수업을 들었고, 3개월 뒤 ITQ엑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북한에서 했던 통계원 경력이 빛을 발한 모양이었다.

## ♥ 마흔 살, 쇼핑몰 인턴 경리가 되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고용센터에서 일자리를 연결해주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신입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지만, 센터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쇼핑몰 경리부 인턴사원이 됐다. 하지만 입사 초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학원 수업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기능들이 많았던 것이다. 민정 씨는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고, 그런 마음을 좋게 여긴 사장은 민정 씨에게 직접 일을 가르쳐주었다.

열심히 배우다보니 어느새 민정 씨는 전산회계사 자격증까지 있는 2년차 경리가 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렸고, 두 달에 50만 원을 받으며 근근이 버텨온 민정 씨는 이직을 준비해야 했다. 민정 씨는 쇼핑몰을 나와 곧바로 건설사에 들어갔지만, 건설사 역시 얼마 안가 폐업하고 말았다. 그사이 딸도 중국에서 테러고 왔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도 찾았구나 싶었던 민정 씨는 연거푸 찾아온 실업에 다시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다.



이때 선배였던 연하 씨가 또 한 번 큰 역할을 해주었다. 탈북민 출신의 복지 상담사를 찾던 채용공고를 내밀면서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유한 것이다. 하지만 도무지 자신이 없었던 민정 씨. 사회복지는 지금껏 배운 경리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선택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연하 씨는 “복지관 일도 경리처럼 배우면 된다”며 격려했고, 앞으로 어떤 공부들이 필요한지도 꼼꼼히 알려줬다.

## ♥ 탈북민들의 친구, 선배, 가족이 되는 일

매일 아침 복지관을 청소해놓고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미소 가득한 얼굴로 인사하는 민정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자신처럼 어렵게 탈북한 동료들과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복지관을 찾아오는 탈북민들은 갖가지 문제로 민정 씨를 찾는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탈북민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민정 씨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터 관련 기관과의 연결이 전부인 어려운 문제들까지 매우 다양하다.

“한 번은 생생직 일을 하던 탈북민 분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가족이 없으니 수술동의서를 써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동의서를 써드리고 밤새 수술실 앞을 지켰어요. 수술비가 25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바로 퇴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가 주민센터에 긴급생계비를 요청해보라고 해서 해결이 됐어요. 저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그 분이 느끼는 막막함이 뭔지 잘 아니까 발로 뛰면서 방법을 알아보고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정 씨는 지난 6년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어떤 일을 하던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방법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천천히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가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곳에 와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민정 씨는 요즘 가족상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하 선배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민정 씨도 동료 탈북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다.



새내기 엄마 양육교육 발대식



홍민정 씨가 임하고 있는 건강가정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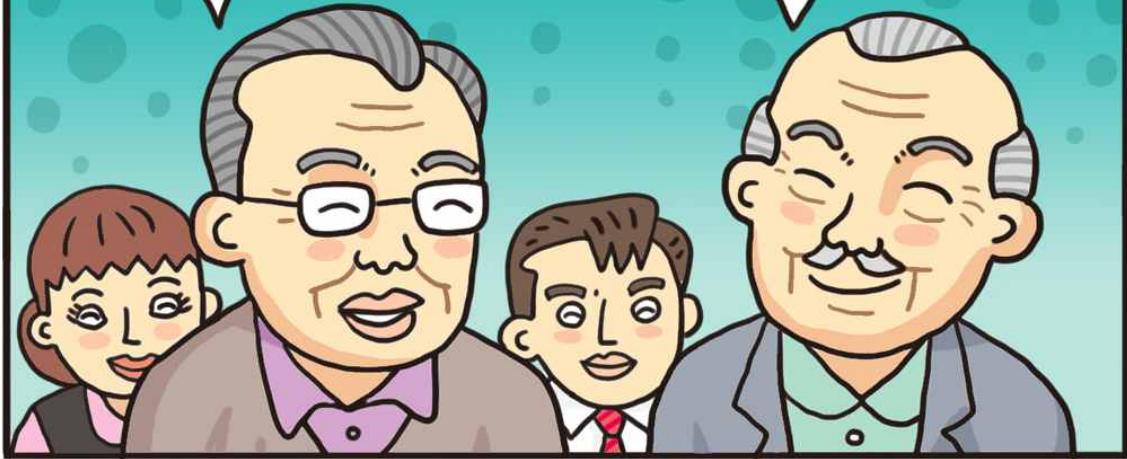






그거 좋지요. 청진이 중국,  
러시아랑 가까워서 그런지, 이젠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도시가  
됐으니까.

이런 좋은 시절을 못 보고 가신  
부모님 생각에 맘은 아프지만,  
애들이라도 이젠 평화로운 세상  
에서 잘 키워야지.



---

# 봄 산 찾아 내게 오시려거든, 강원도 오대산

이것도 실은 네게로 가는 여러 길목의 한 주막쯤인 셈이요  
〈나태주 - 봄날에〉

봄이란 그런 것이다. 보이는 자리마다 연두빛 새순에 지천이 푸른빛인데도 아쉬워 누군가를 기다리게 된다. 그저 설레고 이유 없이 그리워진다. 그대는 바람으로 오는가, 목달미에 내려앉는 불멸으로 오는가. 나는 지금 그대를 만나러 간다. 우리가 만날 곳은 새소리가 들리는 전나무 숲이었으면 좋겠다. 숲에는 바다 같은 아득한 하늘이 숨어 있는데, 그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그대 향해 떠난 나도, 그리고 돌아올 그대도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바야흐로 봄이다.



---

봄날이 머물러 꽃으로 피어나고,  
오대산 상원사

---



오대산을 감싸 안은 듯 뒤덮은 전나무 숲으로 발을 들인다. 이효석도 이 산을 걸었을 것이다. 《산》에서 삶에 지친 자가 깊은 산으로 숨어들었듯,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쉬고 싶다. 숲은 가도 가도 나무,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들 자라는 나무밖에 없다. 어린 나무와 늙은 나무가 뒤섞인 사이 군데군데 풀린 하늘은 바다처럼 깊고 푸르다.

숲길을 따라 안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어쩌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심산(深山)까지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어딘가 젊어지는 샘물이 숨겨졌을 것도 같은 비밀스러운 숲이다. 무엇이건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이 가득하다. 씹는 데 필요한 힘은 우주를 통째로 드는 힘과 같았는데, 숨만 들이마셔도 아프고 그리워하던 빈 곳이 채워지는 듯하다.



분홍 연등이 가득 핀 상원사 경내



상원사에서 내려다본 오대산 능선

오대산은 오래전부터 병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던 장소였다. 본디 상원사는 600여 년 전 세조가 요양하던 곳이었다. 상원사 입구에는 허리높이 만한 석조물이 있는데 이는 ‘관대걸이’라고 전해진다. 세조가 여기에 관대(冠帶)를 벗어두고 몸을 씻었는데, 불치의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이곳에선 무거운 옷도 마음의 칼도 내려놓는 자리인 듯하다.

상원사는 거대한 꽃송이처럼 돌계단 끝에 올라앉아 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상원사부터 이어진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 곳곳이 분홍 연등으로 물들어 있다. 세상 걱정을 잠시 놓았더니 바람에 은은한 풍경소리가 들려온다. 다사로운 햇별은 모르고 두었던 생채기까지 아물게 하여 어느새 몸이 가벼워진다. 온전히 좋은 날이다.

## 조국의 봄날을 예감했던 자취, 경찰전적비부터 봉산서재까지

내가 여기 있는 건 저만치 앞서 지켜주던 누군가를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의 근본을 찾아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 나의 기원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그다지 먼 곳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 땅은 사람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순결한 땅이다.

해발 960m 오대산의 진고개에는 바람을 견디며 기념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무궁화의 다섯 꽃잎을 형상화한 경찰전적비. 6·25 격전지였던 오대산 기슭을 목숨 걸고 지키던 평창경찰서의 경찰들을 기리는 비다. 지금도 민족의 운명을 구하고자 산화한 넋들의 맥동이 발밑에서 뛰는 듯하다. 자신을 버리고서라도 민족을 지킨 정신.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 그 역사적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진고개에서 멀지 않은 봉평 초입에는 봉산서재가 있다. 이곳은 임진왜란을 예견했던 두 학자인 율곡 이이와 화서 이항로를 기리는 자리다. 또 율곡 이이가 잉태된 자리이기도 하다. 율곡 이이의 부친인 이원수가 인천에서 수운관관으로 머무르던 조선 중종(中宗; 1530년경) 때, 사임당 신씨는 강릉과 서울 사이를 오가는 남편의 고단함을 걱정해 이 봉평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남편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가득 해서일까, 사임당은 봉평의 관관대(수운관관을 지낸 이원수의 직책에서 이름을 따 ‘이관관의 집터’라는 뜻)에서 율곡 이이를 잉태(1536년 봄)했다.

유생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고종이 이곳에 봉산서재를 세운 때는 일제강점기(1906년)였다. 봉산서재를 지어 조국의 기운을 중흥하려 했던 고종의 절박함이 어땠을까. 그러나 오히려 안전한 느낌마저 드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잉태된 것이 천년을 이어갈 훈이어서 그런 것인가. 이곳에서 내 근본을 바로 잡고 몸을 세운다. 발을 디딘 부분이 단단하다면, 밖으로 넓혀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봄은 내 앞을 다져가기 알맞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 경찰 전적비의 모습



건립에 참여한 유생들과 건립 취지를 기록한 현판



봉산서재의 모습

## 겨울을 이겨내고 황금이 된, 황태



김밥처럼 따뜻한 밥상, 황태찜 한상

영동지방에서는 '오대산에 가서 밥을 먹지 못하면 사흘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곳의 산채 밥상도 메밀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봄과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꼽으려면 단연 황태다. 우물에서 송능 찾고 산에서 생선 찾는 것 같지만, 맛있는 황태는 이미 산 넘고 물을 건너 여기서 봄맞이 중이다.

봉산서재에서 6번 도로를 타고 이효석 생가 쪽을 향하다보면 식당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황태 메뉴는 메밀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다양하고 그 맛도 깊다. 백색에 가까운 은빛 명태가 황금빛 황태가 되기까지 말랐다 녹았다하던 그 인고의 시간이 깊은 맛으로 배어들었을까.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사설이 길다. 예쁜 그릇에 담긴 식당 음식인데, 곁들여 나온 찬이며 음식의 온기며 정성으로 따지면 집밥과 다름없다. 산나물에 장아찌, 어느 것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 여기서 이런 음식만 먹으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다.



## 비밀의 숲 같은 봄의 정원, 유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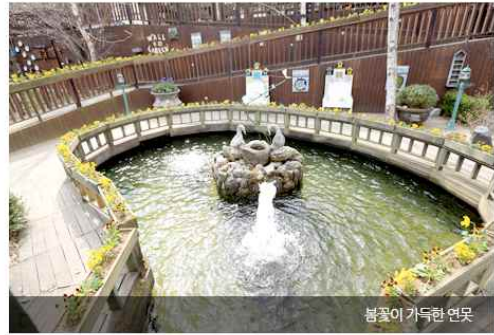
흥정계곡이 있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부가 두 손으로 가꾼 비밀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 들어서자마자 보랏빛 아네모네의 큰 꽃송이부터 눈에 띈다.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가 꽃인지 모를 만큼 꽃에 꽃이다. 겨울이 길고 응달이 진 산기슭에서 그토록 큰 꽃망울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건 가구는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일 터. 짙은 봄 향기는 모두 여기에서 피어나는 듯하다.

꽃도 꽃이지만, 어쩌면 이곳의 진짜 주인은 바람개비와 풍경이 발 닿은 자리마다 가득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강원도로 들어설 무렵부터 내 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왔던 것이 봄바람이었음을, 여행 막바지인 여기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찾으려 간 게 아니라 내내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도.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도.

그대와 함께 봄 길을 걸어서, 좋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다.



유리 온실의 꽃길 정원



봄꽃이 가득한 연못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에서도 북에서도 최고의 산나물, 두릅나물밥

이름만 들어도 입안에 향기가 감돌고 씹싸래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떠오르는 두릅.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은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것은 물론, 독특한 향기와 함께 어우러진 단맛과 쓴맛이 일품이라 남북을 가리지 않고 고급 산나물로 사랑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부 산악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채취가 어려워 일반 주민들이 두릅을 쉽게 구경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남한에서는 5월이면 마트나 장터 등지에서 쉽게 두릅을 구할 수 있다.  
빼어난 맛에 더해 쇠약해진 원기까지 회복해주는 두릅나물밥을 만들어보자.



## 요리재료

쌀 500g, 두릅 150g, 돼지고기 100g  
양념장 재료 :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대파 약간, 소금 약간

### Step 1



두릅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손질해 잘게 썰어준다.

### Step 2



준비한 두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Step 3



돼지고기는 잘게 썰어진 것으로 구입해 양념장과 섞어준다.

Step 4



쌀을 씻어 밥을 짓는다.

Step 5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한 돼지고기와 두릅을 볶아준다.

Step 6



밥이 다 되어갈 때 두릅볶음을 밥 위에 얹고 뜸을 들여 주면 완성.

TIP

※ 야외에서 즐기거나 술에 직접 밥을 지을 경우, 돼지고기와 두릅을 볶다가 곧바로 쌀을 붓고 물을 부어 밥을 지어 먹어도 맛이 일품이다.

요리연구가\_박민지

북한 최고의 두릅은 '영원두릅'

'평안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영원군은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두릅 산지로 알려져 있다. 영원두릅이 오랜 시간 유명세를 떨쳐온 만큼 두릅과 관련된 일화도 많다.

'어느 날 평안남도 군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원군수가 두릅 자랑을 늘어놓자 다른 군수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비웃었다. 이에 약이 오른 영원군수는 두릅으로 회를 만들어 음식상에 올려놓았는데, 두릅을 맛본 군수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 국가자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북에서는 두릅을 인공 재배하는 기술이 없어 직접 산기슭이나 골짜기에 자생하는 것을 돌아다니며 따야만 한다. 자연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싹을 틔운 영원두릅의 맛과 향은 북한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 민주평통 통일활동 소식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외교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민주평통 ‘2017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 개최’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국민적 이해 및 합의 필요”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지난 3월 중순부터 '2017년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3월 15일 전남지역회의(동부권)을 시작으로 제주지역회의(3월 18일), 충북지역회의(3월 22일), 울산지역회의(3월 28일) 등이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으며, 4월에는 서울 3권역(4월 4일,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 협의회와 경북지역회의(4월 6일), 강원지역회의(4월 11일), 광주지역회의(4월 12일), 전북지역회의(4월 13일), 경기지역회의(4월 26일), 대구지역회의(4월 28일) 등이 상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각 자문위원 연수는 △개회사 및 축사 △권태호 사무처장의 '통일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방향' △각 초정연구위원의 통일강연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토크 순으로 진행됐다. 권태호 사무처장은 강연에서 "통일은 단순히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일정책과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 그리고 합의"라고 강조했다. 통일강연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고, 통일토크에서는 각 패널들이 '북한 실상과 탈북 이후의 남한 정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민주평통 ‘2017년 2분기 분과위원회’ 열어 “신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 논의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2분기 분과위원회를 열어 '신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여건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권태호 사무처장, 9개 각 분과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처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정책건의안으로는 △새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중 공통분모를 수렴해 공론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 안정 및 남북한 상생 등을 이룰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며, △북핵문제를 남북문제, 특히 비정치적문제와 분리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로써 8차에 걸친 17기 분과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친 민주평통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분과위원회(18기)가 더욱 합리적인 대안 중심의 정책건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주평통 ‘제3차 북한인권전략회의’ 개최 “남북간 인권 대화 의제 적극 개발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월 24일 ‘신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제3차 북한인권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19개 북한인권 NGO단체와 분과위원들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개회식 △발제 △자유토론 △참가자 의견교환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제성호 인권법제분과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민주평통과 북한인권 NGO단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과 활동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발제를 맡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광백 통일미디어 대표는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을 통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시민의식과 민주화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토론 참가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강제복송 금지 등 남북간 인권 대화 의제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서울·경남지역회의의 ‘제1회 평화통일포럼’ 열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과 체계적인 통일교육 필요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와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충경)는 4월 25일 ‘2017년 제1차 평화통일포럼’을 각각 개최했다. 평화통일 포럼은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통일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들의 통일 의견을 수렴, 확산하는 자리로 행사는 △개회식 △주제발표 △지경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변진홍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지역회의의 포럼에서는 견경남 남북사회통합연구원장이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과 실행과제’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과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산대학교에서 열린 경남지역회의의 포럼에는 하상식 경남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과 25명의 회원이 함께했으며, “북한 상황과 국내의 경제에 맞는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서울 서초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충남 천안시협의회)

서울 서초구협의회(허만장 협의회장)는 지난 4월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2~7강을 열어 '북핵, 사드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 등의 강연과 안보현장 시찰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견학을 진행했다.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은 3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5강에서 '남북분단과 통일 문제' 강연을 실시했고, 충남 천안협의회(회장 유영수)는 4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으로 '남북분단의 과정과 요인', 5강으로 '김정은 체제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 관한 강연을 열었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기 용인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인천 계양구협의회)



▼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경기 안산시협의회)

경기 용인협의회(협의회장 황신철)는 지난 5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으로 '남북분단의 과정과 요인'에 관한 자유토론을, 12일에는 '북한의 정치체제와 전망'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19일에는 '북한의 핵개발실태와 대응 방향' 관한 강연을 실시했고,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6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아카데미' 4강으로 '남북분단과 통일문제' 강연을, 13일에는 5강 '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반도 정세변화' 강연을 진행했으며,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20일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6강으로 북한의 국방부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강원 속초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대구지역회의)

강원 속초협의회(회장 강세호)는 4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2강으로 위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우리 통일 및 대북정책, 동북아 국제정세와 트럼프 외교 등 최근 북한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한 강연을, 18일 4강에서는 '북핵 위험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고, 대구지역회의(부회장 박규하)는 10일 '제1기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 4강으로 '김정은 체제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강연을, 17일에는 5강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에 관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 광주지역 자문위원 연수(광주지역회의)



▲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전북지역회의)



▲ 제주서귀포시협의회 교류 및 자문위원 연수 (대구 수성구협의회)

광주지역회의(부회장 최상준)는 12일 '2017 광주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해 '북한의 핵 위험과 우리의 대비'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고, 전북지역회의(부회장 송현만)는 13일 오펀리스 컨벤션홀에서 14개 시군자문위원 230여 명과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전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열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9일부터 1박2일간 제주서귀포를 방문해 '제주서귀포시협의회 교류 및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 경북지역 자문위원 연수(경북지역회의)



▲ 강원지역 자문위원 연수(강원 평창군협의회)

서울지역 자문위원 연수

▼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구 협의회)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하)는 6일 23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 350여 명과 함께 '2017 경북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고, 강원 평창군협의회(회장 김영해)는 11일 18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과 함께 '2017 강원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으며, 서울 3권역에 속한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구 협의회는 4일 '2017 서울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열어 권태오 민주평등 사무처장의 통일대화를 비롯해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남 남해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남 해남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북 순창군협의회)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5일 청년, 대학생, 군민, 북한이탈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고,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4일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과 재도약의 통일한국', '응답하라 통일미래' 등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성수)는 4일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해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의 통일정책', '여군 상사가 전하는 북한이야기' 등의 강연을 실시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북 남원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육(강원 홍천군협의회)

합 2주 평화통일지원회의 홍천군 협의회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강사: 양태호 평통 협의회장)



▲ 찾아가는 통일교육(대구 수성구협의회)

전북 남원시협의회(회장 김병석)는 19일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어 강연, 토크, 공연이 융합된 북한 콘텐츠를 선보였고,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4일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지에 관한 통일교육을 실시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5일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개최해 '북한의 현실과 우리의 안보'를 주제로 안보강의를 진행했다.

포럼



▲ 경북평화통일포럼(경북지역회의)

▼ 제1차 충남평화통일포럼(충남지역회의)



▼ 제1차 전남평화통일포럼(전남지역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13일 시·군협의회 협의회장, 포럼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북평화통일포럼(제28차)'을 개최했고,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병묵)는 20일 '2017년 제1차 충남평화통일포럼'을 열어 '남북분단의 과정과 평화통일의 길' 강연을 실시했으며,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장영인)는 7일 전남 4개 협의회 포럼 회원과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포럼을 개최해 '2017년 한반도 경제와 북한의 현 시장경제'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 제32차 강원·제주합동평화통일포럼(강원지역회의)



▼ 제28차 대구평화통일포럼(대구지역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32차 강원·제주합동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경제변화와 한반도의 통일방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통일외교'에 관한 토론을 펼쳤으며,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3일 '제28차 대구평화통일포럼'을 열어 '2017년 시진핑-트럼프의 만남과 동아시아 패권', '트럼프시대의 통일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부안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익산시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남 무안군협의회)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6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했고, 전북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는 5일 '익산시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6일 '여성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를 열어 '북한 여성의 이해'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서울 마포구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기 수원시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북 보은군협의회)

서울 마포구협의회(회장 김성우)는 14일 '2017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북한 현실과 통일 미래상'에 관한 합동토론을 진행했고,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13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개최해 '가마솥 통일이야기' 강연을 열었으며,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 20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최근 통일환경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합동토론을 실시했다.

▼ 여성 통일좌담회(충남 공주시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북 증평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전북 남원시협의회)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김기필)는 13일부터 14일까지 '여성 통일좌담회'를 개최해 '회합'을 주제로 한 토론을 실시했고, 충북 증평군협의회(회장 강춘희)는 12일 '2017 여성 지도자 통일 공감 좌담회'를 열어 '한반도 정세 변화와 중국'에 관한 합동토론을 진행했으며, 전북 남원시협의회(회장 김병석)는 10일 문화예술지원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통일공감좌담회'를 열었고, 경기 용인시협의회(협의회장 황신철)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2017 탈북 청소년 멘토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탈북청소년 멘토아카데미(경기 용인시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기 칠곡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북 옥천군협의회)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충북 진천군협의회)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14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었고,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박관상)는 3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가졌으며, 충북 진천군협의회(회장 박승서)는 18일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통일비전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실시했으며,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3일 '2017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를 열어 '북한은 지금'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 여성지도자 통일공감 좌담회(경기 가평군협의회)

기타회의



▲ 제17기 5차 충남 여성분과위원장 회의(충남지역회의)



▲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



▲ 통일동아리 임원진과 간담회(전남 무안군협의회)

충남지역회의(회장 김병목)는 6일 '제17기 5차 충남 여성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통일 맘 정착수기 공모전' 등 홍보 활동에 관한 논의를 가졌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현)는 14일 2017년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며,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4일 통일동아리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토론포럼, 안보연수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했다.



## 통일문화 확산



▲ 제10회 평화통일염원 시민한마음대회(충북 충주시협의회)



▲ 계룡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충남 계룡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석중호)는 15일 충주시민 2,500여 명과 함께 '제10회 평화통일염원 시민한마음대회'를 개최해 벨리댄스, 대학생 극단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태극문양 부채만들기, 북한사진전과 같은 다양한 통일 체험행사를 진행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10일 '계룡시 여성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일·북한 관련 영상 시청 및 북한음식 체험 등 문화공유 시간을 가졌다.



▲ 추모행사(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



▼ 국립4·19민주묘지 및 순국선열 묘지 참배 (서울 강북구협의회)



▼ 통일정책 홍보활동(충남 예산군협의회)

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지회장 조성운)는 6일 필리핀 포트 보니파시오(Fort Bonifacio) 필리핀국립묘지(Libin Libingan Ng Mga Bayani)를 방문해 한국참전기념비 앞에서 필리핀 원정군 7,420명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가졌고, 서울 강북구협의회(회장 김송대)는 12일 '제56주년 4·19혁명일'을 맞아 국립 4·19민주묘지와 순국선열 묘지에서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참배 시간을 진행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8일 지역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연계한 통일정책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전(충남 계룡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골든벨(서울 금천구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골든벨(전남 목포시협의회)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10일 용남고등학교에서 '2017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전'을 개최해 25명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했고,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14일 문일고등학교에서 '2017년 찾아가는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열어 100명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발탁했으며,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도 덕인고·홍일고·문태고·해인여고에서 '2017년 찾아가는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열어 학교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25명 선출했다.

통일 이야기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전남 보성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이야기(전남 강성군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경기 평택시협의회)

전남 보성군협의회(회장 김길두)는 10일 벌교여자중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해 '통일을 꿈꾸는 남북청소년'이라는 토크식 강의를 진행했고, 전남 강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14일 강성실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경기 평택시협의회(회장 유승익)는 3일 이흥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실시했다.



▲ 북한음식 체험 및 북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야기 (충남 청양군협의회)



▼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충남 계룡시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육(대구 수성구협의회)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4월 17일부터 18일 청신여자중학교 학생들과 '북한음식 체험 및 북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야기' 행사를 실시했고, 충남 계룡시협의회(회장 김원태)는 4일 용남고등학교 학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으며, 대구 수성구협의회(회장 신철범)는 11일 오성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진행했고,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15일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들이 구암리 지식모교과 유천리 청자박물관에서 역사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역사문화체험(전북 전주시협의회)

통일현장 견학



▲ 민통선 걷기 및 DMZ 투어(경기 가평군협의회)



▲ 학생 통일안보현장견학(대전 중구협의회)



▲ 통일미래세대 통일안보현장 견학(전북 부안군협의회)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4월 14일부터 15일 가평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통일세대 인성과 통일관 경량'을 위한 민통선 걷기 및 DMZ 투어를 진행했고, 대전 중구협의회(회장 한재득)는 13일 대성고등학교 학생들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도라산역,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견학했으며,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는 1일 부안여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미래세대 통일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고,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는 18일 무안 백제고등학교에서 '제2기 통일 동아리 출범식'을 가졌다.



▲ 제2기 통일 동아리 출범식(전남 무안군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제8회 북한이탈주민 아름다운 합동결혼식 (대전 대덕구협의회)



▲ 제5차 민주평등이 함께하는 장학나눔 마추보기 (서울 노원구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전달식(대구 달서구협의회)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강덕구)는 11일 지역 교회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북한이탈주민 아름다운 합동결혼식'을 진행했고,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19일 '제5차 민주평등이 함께하는 장학나눔 마추보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8일 '북한이탈주민자녀 장학금전달식'을 실시했다.



▲ 북한이탈청소년 장학금(품) 전달식 (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



▼ 탈북청소년 초청 문화탐방(경기 과천시협의회)



▼ 추억 만들기&사랑의 김장 나눔행사(제주 제주시협의회)

경남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지회장 조성윤)는 18일 마산동부경찰서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장학금(품) 전달식을 가졌고,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15일 탈북청소년들을 초청해 놀이동산과 미술관 체험을 진행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8일 북한이탈여성 15팀의 추억만들기와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열었고,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8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북한이탈주민 무료 건강검진(경북 구미시협의회)

## 지역봉사활동



▲ 봄맞이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인천 서구협의회)



▲ 통일공감 식목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인천 계양구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경화)는 4일 '봄맞이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고,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는 5일 '통일공감 식목행사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열어 편백나무를 식재했다.

## 해외활동



◀◀ 제6회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및 탈북 인권화가 작품 전시회(미국 하와이협의회)

미국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4월 15일 한인 밀집 주거 지역에 위치한 한 교회(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제6회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 및 탈북 인권화가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영어와 한국어 등 2개국어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북한, 통일 관련 문제에 대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날 단체 1등상은 루즈벨트고교팀이 수상했다.



▲ 드폴대학 전문가 초청 북한 실상 강연회(미국 시카고협의회)

미국 시카고협의회(회장 이문규)는 4월 11일 드폴대학 링컨대학생센터에서 '북한 종교탄압 및 인권문제 실상'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The North Korean Genocide: Jerusalem of the East No More'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단현명 NIU 법대교수, 홍성환 ENoK 대표, 댄 청 크로싱 보더스 대표 등 북한 전문가들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김레위 씨가 강사로 초청됐다. 이날 단현명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10개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반해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소리 내서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며 종교자유가 없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설명했고, 홍성환 대표는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은 정착 초기 몇 달간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뿐 그 후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ENoK은 옴파워하우스를 설립해 재정적인 걱정 없이 공부하며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민 김레위 씨는 "북한에서 신분 차별을 받게 된 후, 내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 탈북을 결심했다"고 고백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고, 행사에 참여한 드폴대 재학생 키키 무세티스는 "강연을 통해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민 김레위 씨는 "북한에서 신분 차별을 받게 된 후, 내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 탈북을 결심했다"고 고백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고, 행사에 참여한 드폴대 재학생 키키 무세티스는 "강연을 통해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 칭다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및 사생대회(중국 칭다오협의회)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8일 칭다오 청소년들의 통일희망 관심유도를 위한 '2017 칭다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칭다오 및 연태, 위태 지역의 10개교 등 250명이 참가했으며, 백일장은 '북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사생대회는 '한반도 통일 희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 평화통일기원 백일장 및 통일강연회(중국 베이징협의회)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경제화)는 3월 15일부터 4월 8일까지 북경한국국제학교와 천진한국국제학교에서 "평화통일기원 백일장 및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차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북경, 천진 등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초·중고 학생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9명을 선발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북경한국국제학교에서 행사 참가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일강연회를 열어 연사로 초청된 중국한국대사관 한중욱 통일관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정부 통일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통일대한민국을 상상하다”

## 경상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통일문제 토크쇼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여러분 옆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죠. 언젠가 갑작스레 펼쳐질지 모르는 ‘통일 한국’을 위해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 20일 경상대학교 교양관에서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가 열렸다. 민주평통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학생 통일대한민국을 상상하다’를 슬로건으로 각국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과 우리 국민들이 가진 통일 공감대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통일 한국을 살아갈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날 민주평통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가 준비한 ‘대학생 통일문제 토크쇼’에는 경상대학교 학생 300여 명과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원호영 진주시협의회장, 최충경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크쇼는 개회식과 통일특강에 이어 북한 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탈북민이 패널로 참가한 통일 토크쇼 순서로 진행됐다.



권태오 사무처장 '통일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방향' 강연



질문하는 학생들



강연을 듣고 있는 경상대 학생들

이날 통일특강을 맡은 권태오 사무처장은 “해외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은 한 달에 1천 달러를 받는데 그중 90%는 당으로 들어간다”며 “이와 같이 정당하게 누리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사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 사무처장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0%였으며 공감대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세대가 빨리 통일을 달성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며 “학생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호영 경남 진주시협의회장



최충경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

이번 통일문제 토크쇼를 기획한 원호영 진주시협의회장은 “과거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산업화’와 ‘민주화’였다면, 오늘날은 ‘통일’이 최대 핵심 키워드”라며 “통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개회사를 전했고, 최충경 경남지역회의 부의장은 “건강 없이는 모든 일이 소용없는 것처럼, 통일과 안보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은 “모두가 꿈꾸면 현실이 된다”며 “이번 토크쇼가 많은 젊은이들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NAUH 지성호 대표와 패널들

당하게 누리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사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 사무처장은 최근 우리나라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70%였으며 공감대 확산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세대가 빨리 통일을 달성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며 “학생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호영 경남 진주시협의회장



최충경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

이번 통일문제 토크쇼를 기획한 원효영 진주시협의회장은 “과거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산업화’와 ‘민주화’였다면, 오늘날은 ‘통일’이 최대 핵심 키워드”라며 “통일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원동력”이라는 개최사를 전했다. 최종경 경남지역회의 부의장은 “건강 없이는 모든 일이 소용없는 것처럼, 통일과 안보는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구원 진주시 부시장은 “모두가 꿈꾸면 현실이 된다”며 “이번 토크쇼가 많은 젊은이들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 자유를 찾아 떠난 1만km 여정, 탈북민을 다시 보다

2부 토크쇼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단체 'NAUH(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김동현 사무국장, 나우를 통해 입국한 여성 탈북민 김지영(가명) 씨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지성호 대표는 북한에서 겪었던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자유'를 찾아 떠난 1만 킬로 탈북 과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우리는 이미 3만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이 시작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며 “통일이 되면 학생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알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을 살려 북한에서도 일하게 될 세대”라고 설명했다.

탈북민 김지영 씨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장마당 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북한 대학생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김동현 사무국장은 봉사활동에서 만난 탈북민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우'에서 일하게 됐으며 인권활동을 시작한 계기를 이야기했다.

토크쇼 후에는 학생들이 응모한 '통일 4행시 짓기' 당첨자가 발표됐다. 그 결과 학생 15명의 통일 시가 우수작으로 뽑혔으며, 그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홍제 윤리교육학과 학생이 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생 미니 인터뷰

##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



#### 김현준 (경상대 학생군사교육단 생도)

그간 북한을 뉴스로만 접해왔는데 오늘 북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돼 유익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북한 대학생들은 어떤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홍제 (경상대 윤리교육학과 17학번)

평소 북한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어요. 강연을 듣고 나니 '통일은 하나와 하나가 만나 완벽한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한민족이 만나는 것이니까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통일 4행시 짓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 소통, 그리고 작은 통일을 이룬다!

## ‘2017 남북어울림한마당 한마음축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손경식 부의장)와 남북하나재단(손광주 이사장),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홍양호 원장)이 공동 주최한 ‘2017 남북어울림한마당 한마음축전’이 5월 3일 국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축전에는 탈북 청소년 및 대학생,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민대 학생,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동아리, 국가대표선수회 회원,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식전행사 △개회사 △소통의장 △오찬 △명량운동회 △통일골든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 “내년 한마음축전은 ‘평양’에서 열리기를”

아침 일찍 운동장에서는 평화팀과 통일팀의 축구시합이 벌어졌다.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들,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동아리 학생들이 팀을 이뤄 시합에 임하는 동안 관중석에는 힘찬 응원 열전이 펼쳐졌다.

그 사이 운동장 단상에는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서울지역회의 운영위원을 비롯해 서울시 11개 구 협의회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박중윤 사무총장,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과 홍양호 한반도미래연구원장, 장윤창 국가대표선수회 회장과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리했다.



2017 한마음축전 식전 축구경기



탁구 치는 참가자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식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줬던 분들은 항상 젊은이들이었다”며 “오늘 열일 재쳐두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탈북민과 남한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내년 행사는 ‘평양’에서 열리기를 희망하며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어울림’이라는 말은 ‘여럿이 모여져 한 덩어리로 크게 만들다’는 뜻”이라며 “‘어울림’과 ‘통일’의 의미가 상통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에 맞게 잘 어울려보자”고 말했다.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

이날 행사를 준비한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은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라며 “오늘 한마음축전이 통일을 위한 작은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올해 주제인 ‘소통 그리고 작은 통일’ 처럼 오늘 모인 남북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작은 통일을 이뤄내 보자”는 다짐을, 손경식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부의장(김명수 운영위원 대독)은 “모두 함께 웃고 땀 흘리며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을 함께 이뤄가자”는 말을 전했다.

##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한 올림픽 종목 체험



국가대표 선수들 소개



국가대표선수들과 참가자 기념촬영



김재범 선수의 유도 시범

개회식 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운동장에 모여 ‘통일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남북 청년들과 내민들은 색색의 통일 풍선을 날려 보내며 다 같이 통일을 염원했고, 퍼포먼스 후에는 내빈으로 참석한 전직 국가대표선수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전 국가대표 장윤창(배구) 선수를 비롯해 이경근·양종욱·김재범(유도) 선수, 조은희·윤현경(핸드볼) 선수, 임훈애·문선정(육상) 선수, 홍차욱(탁구) 선수, 현 고려대 농구부 이민형 감독 등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한 뒤 ‘선수들과 함께하는 올림픽 종목 체험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동대문구협의회 김지현 분과위원장 가족



남북하나 씨앗화분 만들기 체험장



북한 음식 체험마당

올림픽 체합의 인기 종목은 유도와 배구였다. 손수 유도복까지 준비해온 김재범 선수는 몇몇 동작들을 선보이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윤현경 선수는 청소년들에게 공 다루는 방법과 패스 기술을 가르쳐주며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날 온 가족이 배구 체험에 나선 동대문구립의회 김지현 기획운영 분과위원장 “엄마아빠가 협동해 게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즐거워했다”며 “하루빨리 통일이 돼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오에는 맛있는 도시락 오찬과 함께 북한 음식 체험 마당이 열렸다. 북한 음식으로는 빵, 떡, 국수, 순대 등이 준비됐는데, 이중 최고 인기 메뉴는 당면 대신 쌀밥이 들어간 부드러운 ‘북한식 순대’였다. 체험 마당 옆에는 ‘남북하나 씨앗화분 만들기’와 ‘통일 응원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도 진행됐다.

## 몸과 맘으로 소통하는 ‘명랑운동회’, ‘통일 골든벨’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명랑운동회’가 펼쳐졌다. 파도타기 게임 등 단합을 요구하는 게임에서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통일팀이 우세를 보였지만, 큰 공 굴리기, 인간기차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맛맛 릴레이 게임에서는 빨간 조끼를 착용한 평화팀의 활약이 압도적으로 빛났다.

이날 통일팀에서 활약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허성민 학생은 “오늘 한마음축전을 통해 북한 친구들과 몸과 마음으로 소통한 것 같아 재미있었다”며 “통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된 하루였다”고 말했다.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허성민 학생과 친구들

마지막 순서로는 국민대 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와 함께 ‘통일 골든벨’이 진행됐다. 통일 골든벨 시간에는 주로 북한 문화에 관한 OX문제가 주어졌는데, 예선에서는 탈락자가 상품을 받는 방식의 게임이 진행됐다. 예선 문제를 모두 맞힌 20명의 참가자들은 본선에 진출했고, 치열한 승부 끝에 결승에서는 1명의 탈북민과 민주평통 상임위원, 여현철 한반도미래연구원 교수만이 남았으며 최후의 1인은 ‘여현철 교수’가 차지했다. 이어 폐회식에서는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이 가족사진 촬영권, 컵라면, 싸인볼 등 다양한 선물을 받아가며 흐트한 미소를 지었다.

환한 웃음과 뜨거운 함성 속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2017년 한마음축전’에 주어진 슬로건처럼 참가자 전원이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작은 통일’의 현장이었다.



명랑운동회의 함께 걷기 시험



명랑운동회의 인간 기차 릴레이 게임



통일 골든벨 본선 대회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0호 '통일 동아리'

## 이벤트 당선작



### 한반도의 미래를 연구하다 '한미연'

중앙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회'는 줄여서 '한미연'입니다.  
한미연은 매주 목요일 7시 정기 스터디를 하고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통일대학생동아리연합' 과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이 주관한 안보현장 견학부터 통일부 옴니버스 특강, 탈북자간담회, 북한인권 동아리 연합 세미나, 통대동연 학술토론회 등이 그것이죠.

작년에는 고려대 통일동아리와 연합해 '한반도 메이리'라는 이름으로 남북하나재단 PT경진대회 장려상을, 전국대학생통일토론회에서는 통대동연 연합팀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토론회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열리는 토론대회와 연합세미나 등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저희 중앙대 '한미연'을 기억해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 전북 지역 대학생 '통일나래'로 모여라!



'통일나래'는 전북 지역 소재 5개 대학이 연합해 활동하고 있는 통일 동아리입니다. 그중 전북대학 통일나래는 회원 중 일부가 민주평등자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통일나래는 '통일 알리기 캠페인'을 비롯해 '모의 6자회담' 등을 통해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새터민 아동 돕기 봉사활동'과 '파주 통일캠프' 등 활동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전북 시민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당신과 내가 비추는 '통일의 별'



'통일의 별'은 탈북민과의 사회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한민족 남녀노소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통해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Uni는 '당신과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Unification통일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Uni Star는 "당신과 내가 비추는 통일의 별"이라는 의미입니다. (\* 멋지지 않나요?)

통일의 별은 통일 및 북한 소식에 관한 공감 인식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확산하고 대학수업과 연동한 콘텐츠를 제작해 남북청년들의 통일 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언론과 방송, 기고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통일 이후의 한반도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미래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정한 통일의 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통일'은?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통일'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통일'을 그림, 캘리그래피, 낱말 스크랩, 만들기, 사진, 삼행시 등  
자유롭게 표현한 후 인증샷을 찍어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표현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우수작 두 개를 추첨해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예시  
01

'우리집'으로 통일 삼행시

우: 우리 가족의 소원은  
리: 이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집: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시  
02

통일을 표현한 캘리그래피

함께하는  
통일입니다

**참여방법**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통일'을 표현해  
인증샷 찍어 응모하기  
**접수기간** 2017년 5월 15일 ~ 6월 3일(토)까지  
**상 품** 패밀리 레스토랑 상품권(2명)

응모하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캠핑 가서 북한요리(설야먹적) 해먹기!

행복한통일 웹진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 캠핑 가서 북한요리(설야먹적) 해먹기!



캠핑의 계절 5월엔 고기구이 요리가 빠질 수 없죠.

온 가족 야외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 호 '북한별미'에 소개된 북한 음식 '설야먹적'을 만들어보세요.**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상품도 받고!

지금 도전하세요~~

**참여방법** 51호 북한별미에 소개된 '설야먹적' 해 먹고  
인증샷 찍어 응모하기

**접수기간** 2017년 5월 15일 ~ 6월 3일(토)까지

**상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원권 (3명)

## 응모하기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통일 출석표를 찍어주세요!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두리몽실	**ove1025@naver.com
마미굿	**tro@naver.com
서인애	**ue0350@naver.com
세상바라기	**flays@naver.com
이성균	**khero@naver.com
휘영정보름달	**soyoung79@hanmail.net
통일아저씨	**24705@naver.com
간다	**pe@naver.com
하향	**j34d@naver.com
경이	**ndengnd@hanmail.net



### 나도 'e-행복한 통일' 기자!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라일구	**u1975@naver.com
불이양	**oalexiei80@gmail.com
민트쿠키	**teto1030@hanmail.net
하늘천사타이	**tio@naver.com
임성희	**dgmlyim@naver.com



###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24-8708	010-**-96-9981
010-**-50-2731	010-**-82-0173
010-**-18-4922	010-**-88-6203
010-**-28-5384	010-**-10-6154
010-**-64-6372	010-**-63-7788
010-**-50-4437	010-**-01-8710
010-**-71-5104	010-**-96-1833
010-**-09-5337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